

TEXTILE & FASHION
TREND ISSUE

‘발렌티노’의 가상 핸드백 체험 서비스

3D DIGITAL 가상 체험, NFC칩 활용한 DPP 등 고객 경험에 포커스

럭셔리 브랜드의 Web3 로드맵 확대⁽¹⁾

‘돌체앤가바나’, ‘발렌티노’ 등 럭셔리 브랜드들이 메타버스를 대신해 다양한 web3 기술을 도입, 고객들의 체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6일 ‘발렌티노’는 파페치가 소유한 AR 회사 Wana와 새로운 가상 핸드백 체험 서비스를 출시했다. ‘발렌티노’의 가라바니 V슬링(Garavani Vsling) 백에 대화형 기능을 적용해 선보였다. 사용자는 스마트폰 전후방 카메라를 이용해 다섯가지 색상의 핸드백을 가상으로 시

작해 볼 수 있다.

‘돌체앤가바나’는 증강현실 선구자 Fface.com과 협력해 AR 메이크업 스테이션을 제안했다.

고객들이 새로운 컬렉션을 가상으로 메이크업해 봄으로써 신제품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또 NFC 기술을 활용해 Web3 고객 경험을 확대하는 곳들도 있다.

프리미엄 아우터 브랜드 ‘템플라’는 NFC가 연

결된 스노우 부츠를 한정으로 출시했다. 신발에

내장된 NFC를 스캔하면 착용자에게 제품 정보,

독특한 NFT, 정품 보증 및 독점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리모와’는 아우라 블록체인과 협력해 디지털 제품 여권(DPP) 대열에 합류했다. 소유자는

각 여행가방에 내장된 NFC 칩을 스캔해 소유권 증명서, 제품 정보 및 무조건적인 평생 보증에 액세스할 수 있다.



Fface의 세미디지털 청바지

3D DIGITAL

Fface.me,
세계 최초
세미디지털 청바지⁽²⁾

실제 의류에 디지털 요소 결합해 색다른 디지털 경험 제공

혁신적인 기술 스튜디오 Fface.me가 세계 최초의 세미디지털 청바지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디자인 자체도 독특하지만 QR 코드 스캐닝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독점적인 디지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실물 제품과 디지털 제품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컬렉션이다.

Fface.me 세미디지털 의류는 실제 제품에 디지털 경험을 접목시켜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스타그램 필터를 사용해 실제 의류의 디지털 요소를 활성화할 수 있다. 즉 실제 의류와 증강현실 레이어를 결합해 QR 코드나 NFT 칩을 스캔해 필터를

활성화한 후 디지털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Fface.me 세미 디지털 청바지 컬렉션은 총 5가지 모델로, 각 모델은 고유한 디지털 본질을 제공하고 물리적 디자인과 디지털 디자인의 통합을 추구한다.

대표적인 모델로 청바지에서 형광 빛이 발산하는 디자인, 사물을 투영시키는 투명한 디자인 등의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

Fface.me는 이외에도 ‘버쉬카’, ‘발렌시아가’ 세미디지털 캡, ‘메종키츠네’ 등과 세미디지털 컬렉션을 선보인 바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프로존 에어 라인

TEXTILE

‘소로나’, 친환경 · 냉감 일석이조 효과로 인기

아웃도어부터 여성복, 아동복까지 다양하게 활용

이번 여름 패션 친환경, 냉감 효과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소로나’ 소재가 인기를 얻고 있다.

‘소로나(sorona)’는 옥수수 수염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통기성까지 뛰어나 여름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부드러운 터치감과 통기성이 우수한 여름철 대표 냉감소재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은 친환경 옥수수 소재를 적용한 ‘프로존 에어’ 라인을 선보였다. 프

로존 에어는 여름철 내내 냉감 효과와 같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신축성과 복원력도 우수한 친환경 라인이다.

프로존 반팔, 프로존 팬츠, 프로존 원피스&스커트 등으로 구성됐다.

애슬레저 브랜드 ‘스컬피그’도 소로나 소재를 활용한 ‘소로나 컬렉션’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소로나 포인트 라인 재킷, 조거 팬츠, 소로나 컬러블록 재킷 등이 대표 상품으로 기능성 원단을 활용해 복원 능력이 탁월하다.

‘지프’, ‘아키클래식’ 등 캐주얼 브랜드에서도 소로나 소재를 활용한 여름 티셔츠를 메인으로 선보였다.

‘지프’는 여름철 데일리 룩으로 착용할 수 있는 반팔 티셔츠에 소로나 소재를 적용했다.

자제 탄성이 있어 자연스러운 활동성을 보장하고, UV차단 기능까지 있어 자유로운 야외 활동이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라이크라와 다이렌이 바이오라이크라를 위해 의향서를 체결했다

TEXTILE

라이크라, 지속 가능한 섬유 생산 위해 다이렌과 협력⁽³⁾

기존 라이크라보다 44% 탄소발자국 감소한 소재 개발

글로벌 섬유 기업 라이크라컴퍼니가 다이렌 케미컬과 의향서를 체결하고, BDO(1,4-부탄디올) 브랜드인 키라(QIRA®)를 바이오 라이크라 섬유의 주성분인 저영향 PTMEG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이렌은 이 저영향 바이오-PTMEG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업이 될 예정이다.

2022년, 라이크라컴퍼니와 코레(Qore®)는 협력을 통해 키라로 만든 바이오 라이크라 섬유를 생산한다고 발표했으며, 다이렌이 이 협업에 합류했다. PTMEG는 라이크

라 섬유의 70%를 차지하며, 다이렌의 저영향 알릴 알코올 공정을 통해 기존 제품보다 탄소발자국이 적은 PTMEG를 생산할 계획이다.

라이크라컴퍼니, 코레, 다이렌은 연구개발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벌이고 있다.

라이크라컴퍼니는 다이렌에 그린 파트너 어워드를 수여하며, 지속가능성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했다.

2025년 초 출시 예정인 키라로 만든 바이오 라이크라 섬유는 대규모로 생산되는 세계

최초의 재생 가능한 스판덱스가 될 것이다.

이 섬유는 기존 라이크라 섬유에 비해 최대 44%까지 탄소발자국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라이크라컴퍼니의 스티브 스튜어트는 “다이렌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 사슬을 실현하게 되어 기쁘다. 다이렌은 지속가능성 노력을 통해 낮은 탄소 배출량을 달성해 왔다”고 말했다.



Versace 매장이 위치한 토피아의 Jio World Plaza

FASHION

럭셔리 마켓 중국 다음 타깃은 ‘인도’⁽⁴⁾

향후 7년 동안 15~25% 성장 예상

영국 다국적 은행 바클리즈(Barclays)는 인도의 럭셔리 시장이 향후 7년 동안 매년 15%에서 2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는 전 세계 명품 판매의 2%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인도의 중산층이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많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인도 지역 내에 오프라인

가사 및 사진 출처

인 매장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인도 시장에서는 ‘구찌(Gucci)’, ‘생로랑(Saint Laurent)’, ‘발렌시아가(Balenciaga)’ 등을 포함해 케어링그룹, 루이비통, 샤넬, 디올 등 럭셔리 브랜드의 인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뉴델리, 뭄바이 등 대도시 쇼핑물에는 글로벌 및 인도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하고 있다.

바클리즈는 인도의 럭셔리 시장 가치가 7년 내에 230억 유로에서 38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인도 내에는 기존 유명 쇼핑몰 외에도 신규 쇼핑물들이 전국적으로 새롭게 오픈하고 있다.

다.

지난해 11월 뭄바이 반드라 쿨라 콤플렉스(Bandra Kurla Complex)에 지오월드프라자(Jio World Plaza)가 개점했다.

이 쇼핑물에는 ‘베르사체’, ‘불가리’, ‘발렌시아가’, ‘디올’, ‘구찌’, ‘버버리’, ‘토즈’ 등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FABRIC DIVE
Virtual Fabric Business Platform문의 : 다이텍연구원 소재빅데이터연구센터
Tel : 053-350-3734, 3743 Email : fabricdive@dyetec.or.kr

JOIN US

1. Jingdaily, D&G, Valentino, The Met, Web3 로드맵 확대, 24년 5월 12일
2. FASHIONUNITED, Fface.me launches world's first semi-digital jeans collection, 24년 5월 17일
3. 패션비즈, 다이렌케미컬, 재생 가능한 바이오 라이크라 섬유 개발, 24년 5월 16일
4. WWD, Could India Be the Next China for Luxury Fashion?, 24년 5월 10일